

이현호, 황영미 선교사의 주간소식지(2025/4월첫째주)

한 주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.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 죄송합니다.

최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“이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온 세상을 섬기는 것이야” 라고 마음 먹으면서 그분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섬기려고 합니다. 그러나 조금만 돌아서 저 자신을 보면 제 마음에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쉽게 발견합니다. 그 한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그 한 사람을 위한 애절한 마음도 별로 없는 저 자신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. 한 사람을 위한 섬김도 결국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.

선교지에서 가장 기쁠 때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. 반대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제일 힘이 듭니다. 저번 주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미 1년 정도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함께 하는 형제 한 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뢰도 사랑도 조금도 없는 것처럼 말할 때 힘이 듭니다. 말씀을 찾아가며 설명도 해 드리고 이야기 하지만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.(그런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신기합니다.)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

그러나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. 두 주 전 주일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. 오래간 만에 이전에 섬기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만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. 한 할머니 성도님은 몇일전 무릎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셨는데 제가 온다고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직접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.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힘이 되었습니다. 이 땅에 섬기려고 왔는데 오히려 사랑과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.

입원해 계시는 꾸집사님 병문안을 갔는데 얼굴색이 너무 좋아지셨습니다.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고 곧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는 말에 감사가 되었습니다. 그래도 목 쪽으로 피가 나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 문제로 약을 쓰면 증풍병에 좋지 않고 증풍병 약을 쓰면 또 그 문제가 악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.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

청소년부 지엔홍은 학교 경연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복음을 담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. 그 소설을 통해 국어 선생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.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청소년부 시간에 제 딸 세희와 함께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학교 공부(수학)와 교우관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.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.

저와 제 아내가 마음을 지키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2025.4.1

대만 타이베이 이현호, 황영미 선교사